인터뷰

원융종 4대종정
한혜붕 스님

"종단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전종도들의 눈과 발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각종단스님 및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원융종 제4대 종정에 취임한 한혜붕스님(71, 상주 연화사)의 소감이다.

종단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

"교육불사 추진 종단 질적향상을"

력을 기울여 온 스님은 "이제는 종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종단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우선 사업으로 교육불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정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교육불사는 우선 승가교육을 시작으로 재가신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전개하게 된다.

스님은 또 종단의 내실을 다지며 외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밝히고 인재양성과 포교에 종단의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근〉

세계불교유물 한자리에 모인다

자연농원서 국내외 500여점 전시…25일~내년 1월

불교방송과 중앙개발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불교문화전'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0개월간 용인 자연농원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세계불교문화전은 세계 13개국의 문화유물 4백여점과 우리유물 1백여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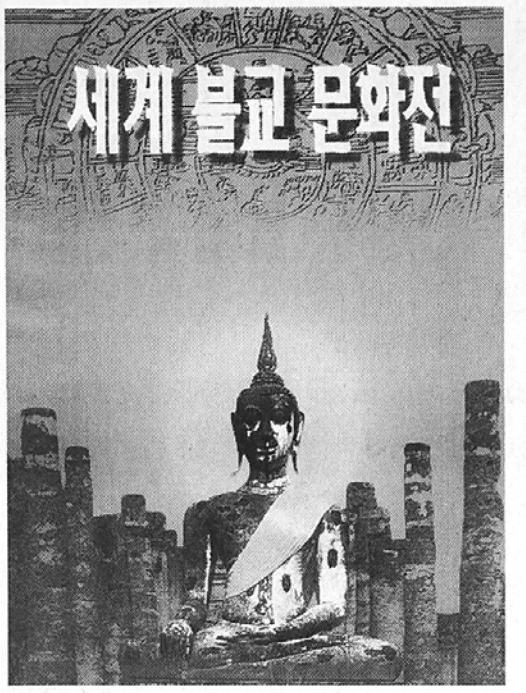
전시관은 4백여평에 1백70미터의 길이로 연예산 14억원의 대규모 이벤트 행사로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와 시대별 불상류등 40여점이 인도에서, 탱화 불교관련의식용구 등 40여점이 태국에서, 상아불상 패엽경 등 46점이 미얀마에서, 황동제용품과 벽화 등 35점이 스리랑카에서, 목조보살상 달마조사상 등 13점이 대만에서, 만다라 미륵불상 부처님 부조상 등 25점이 네팔에서 들여와 전시한다.

이밖에도 돈황유물 파키스탄 간다라 불상 7점, 라오스 10점, 티벳·부탄·일본의 유물과 용품이 전시된다.

한국의 불교전시품은 패엽경, 혈경, 옥발우, 변상도 목판, 귀면와, 대방광불화엄경, 금동여래입상, 무구정광다라니경 등 1백여점과 만해, 성철스님 유품과 불교관련사진 8백여점이 전시된다.

불교방송은 이와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 13개국의 불교유적과 각국의 대표적 사원이나 불교 유적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여주며 각국의 생활문화용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영산재, 사찰음식 시식 등의 각종 이벤트도 마련한다.

한편 인도델리박물관에 소장중인 부처님 진신사리가 들어오는 23일 김포공항에서 시내까지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25일 개막식에는 2백여명의 각국 불교지도자와 내외귀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세계불교문화전이 오는 25일부터 용인자연농원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대호·운경스님 총무원장 후보

법화종 3~10일까지 선거실시

대한불교 법화종 제15대 총무원장후보에 김대호스님(현 총무원장), 주운경스님(홍은동 보홍사주지)이 최종 확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금파)는 차기 총무원장으로 두 후보를 확정하고 4월3일부터 10일까지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현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선거에 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지난달 24일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보현도량 수련결사

태고종 정법사서 지난28일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재홍스님)은 지난달 28일 안산 정법사에서 3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정기수련결사를 개최했다.

이날 결사에서는 △오는 25일 중동부○○사단 오피점등식 및 위령제 봉행 △소년소녀 가장 결연불사 적극추진(1회원1가정 책임제로 전환)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장학기금 모금 등 상반기 불사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수련결사에 동참한 회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조계·태고 분규해결을 위한 양종단의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천태예술제 개최

22일 세종문화회관

천태종 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오는 22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천태예술제'를 거행한다.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마련되는 이번 공연은 음악대서사시 '아제 아제' '아리 아리'와 찬불가 고전무용이 공연되며 특별출연으로 화산스님 김국환 김영림 김성애씨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할 예정이다.

신흥종교 3백여 교단 난립

美·日도 증가추세…사회문제로 대두

사이비교단에 의한 신도 살해 암매장, 동경 독가스 테러사건의 유력한 배후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오우무신리교(眞理敎),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한부종말론의 횡행 등으로 신흥종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일제하 67개 교단에 불과하던 한국의 신흥종교는 해방이후 확대된 종교의 자유를 발판으로 삼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팽창, 현재 13개 계통의 303여개 교단에 달하는 난립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신흥종교총감〉(한국신흥종교연구소 편, 1992)에 따르면, 계통별로 가장 많은 교단을 가지고 있는 신흥종교는 증산계(59)이고, 그다음으로 불교계(49) 기독교계(40) 무속신앙계(27) 단군계(27) 동학계(17) 봉남계(奉南系, 16) 각세도계(覺世道系, 10) 유교계(8) 연합계(5) 일관도계(一貫道系, 5) 기타 외래계(16)의 순이고, 계통이 뚜렷하지 않은 종단도 24개나 된다.

백산 신경정신과 최훈동원장은 이러한 신흥종교의 대두가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의 하나라며,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 수록 사이비종교나 신흥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된다"고 말했다. 사이비종교가 성행하는 것은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의 문제, 현대인의 스트레스, 배금주의의 만연 등 현대문명의 병리현상이 함께 원인이 되고있다는 것.

자비의 전화 5년 상담 분석

총 1만5천건…부부갈등·종교順

지난 90년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불교홍포에 앞장서온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4일 개통 5주년을 맞았다.

자비의 전화는 94년말 현재 총 1만4천9백25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90년(1천2백29건) 91년(2천3백24건) 92년(2천7백9건) 93년(3천67건) 94년(4천9백86건)으로 점차 상담건수가 늘어 자비의 전화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부부문제(16.99%)가 가장 많은 상담빈도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종교문제(14.7%) 가정문제(13.98%) 청소년문제(12.58%) 인생문제(6.87%)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문제에서는 교리문의(39.41%) 신앙갈등(15.7%) 종교적갈등(27.18) 순으로 조사돼 교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홍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별로는 여자(56.3%)가 남자(43.7%)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0대(10.3%) 20대(24.49%) 30대(28.92%) 40대(17.91%) 50대(5.77%) 60대이상(7.3%)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이를 밝힌 상담자 65%중 고졸(15.11) 초대졸(12.16%) 대졸(8.56%)순이며 직업별로는 주부(26.47%) 학생(12.58%)순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30대 여성주부의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비의 전화는 이들 자료를 통해 상담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전화국의 114안내처럼 전화 한통화로 교계전화번호등 불교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최첨단 불교정보서비스 '불교114'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목탁소리

영정 도난, 그 후…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송광사 16국사 영정은 과연 찾을 수는 있는 걸까.

승보종찰 송광사의 상징인 16국사 영정 13점이 도난당한지 벌써 두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느 사건처럼 도난당시만 떠들썩 했을뿐 지금은 수사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사건자체가 잊혀져 가는 느낌이다. 송광사 성보 도난을 계기로 본사에 성보전시관을 건립, 성보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구체적인 예산과 시기가 잡히는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잃어버린 성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어디에서도 안보인다는 점이다. 송광사에 설치됐던 수사본부는 철수된지 오래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사회부에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는 대답외에 속시원한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다.

당해 사찰인 송광사에서도 포상금을 내건 외에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돈이 좀 들더라도 신문이나 TV 등에 광고를 내고, 또 프로그램을 사서라도 문화재 도난 방지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을 내야하지 않을까.

종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태인 학살 주범들을 찾아내는 유태인들과 같은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만 성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통신

'예수는 불교도였다' 독일서 화제

예수가 불교도였다는 주장을 담은 책 〈The Original Jesus〉가 지난달 말 독일에서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엘마 그루버와 홀거 케르스텐은 "성경에 불교철학이 많이 담겼다는 것은 예수가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 자신이 불교도였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성경속의 불교적인 요소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직접 전파한 것이라면서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도였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He that seeth me seeth Him that sent me"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法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의 근원을 보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는 설명.

저자 케르스텐은 종교사 전문가이고 그루버는 과학논문과 책을 여러권 발표한 저술가다.

달라이라마 지난 29일 일본 도착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중국측의 중·일관계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일본에 도착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정부에 달라이라마의 일본 방문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측은 비자를 내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3월29일부터 4월6일까지 예정된 달라이라마의 일본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

일본의 한 신도(神道)단체 초청으로 방일한 달라이라마는 체류기간중 동경에서 개최되는 한 티베트 전시회에 참석, 연설하는 한편 다른 도시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불교병원 승려 교류단 내한

한국의 불교와 의료, 복지단체의 시찰과 조계사·해인사·불국사를 방문,참배하게 되는 '한·일 불교병원활동 승려교류단'이 4월17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한다. 단순한 시찰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사찰에서의 참배, 한·일의 승려교류를 목적으로하는 이번 행사는 전일본불교니승법단(全日本佛敎尼僧法團) 이 주체가되여 각종단의 승려이외에 일반재가신도들도 함께 모집중이다.

교류단의 방문목적에 대하여 전일본불교니승법단(全日本佛敎尼僧法團)대표 타미야씨는 "한·일의 전후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질적인 배상이 아니라 한국의 불교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화해는 가능할 것이다. 의료, 복지의 영역에서도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의 비구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 시민의 요구와 스님의 요구가 일치되지 않는 일본의 불교계가 한국 승려들의 활동, 특히 의료와 복지단체들과의 연계활동의 모습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베트남 불교지도자 2명 체포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의 지도자인 틱 후옌 광 종정과 틱 광 둑 스님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체포했다.

이들 두 지도자는 베트남 공산정부가 베트남불교종단이라는 단일 불교조직을 만들면서 독자적 불교조직활동을 금지하였을 때 당시 베트남의 가장 큰 종단이었던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이 해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억류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틱 후옌 광 종정은 체포당시 작년 11월 연행되었던 베트남통일불교종단 스님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중이었다. 틱 광 둑 스님은 1963년 사이공 거리에서 육신공양을 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종교박해를 국제적 이슈화하여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 스님이다. 이번 사건으로 베트남통일불교종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종단재산 반환 및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베트남통일불교종단측과 관련자 색출 및 구금으로 일관해 오던 베트남 정부 사이의 입장대립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관음손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게르마늄(Ge-32)의 효과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